

# 광주시 '정책소풍' 정책 실행력 높이며 '안착'

### 姜시장, 2년간 38회 복지·문화·산업 등 각 분야 소통 통합돌봄·심야어린이병원·10시 출근제 등 전국 주목

민선 8기 광주시의 '정책소풍'이 생생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형 정책 수립'으로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리며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7월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취임과 함께 시장 주재 소통창구인 '정책소풍'을 도입했다.

시민 제언도가 높은 정책 사업에 대해 시민·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년 간 복지, 안전, 문화, 환경, 산업 등 주제를 망라한 총 38차례의 정책소풍을 진행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시장 주재 '소통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정책소풍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사회적 보호 정책 방안 모색으로 첫 발을 뗐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체계 지원 정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광주아동복지협회 등 지역사회 10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광주형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눈에 띄는 성과다. 늦은 밤 아이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부모의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고자 지역 의료계와 정책소풍을 열어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조성 계획을 마련했고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남구 광주기독병원을 지정,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광산구 센트럴병원을 '달빛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안심의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강기정 시장이 지난 5월 광산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6회 정책소풍에 참석해 외국인정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실현을 위한 뒷받침 역할도 해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실증도시' 신설과 '기업실증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혁신기술 기업 실증 관련 일원화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광주' 구축에 전력을 쏟았다.

광주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복지 표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에도 기여했다. 강 시장은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현장을 찾아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보완점을 마련하는 등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일명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며 광주형 육아지원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한 사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연 정책소풍에서는 5·18 관련 시설 집적화,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기정 시장은 "소중 가치 판단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자 정책소풍을 시작했다. 민심의 옷을 입어야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단 지성의 힘으로 실현된다고 믿는다"며 "광주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형 정책 수립으로 시민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시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 '장성 동물보호센터' 부실 운영 수사 의뢰

### 전남도 종합감사...담당 郡공무원 2명 중징계 요구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과정에서 미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 역할도 소홀히 하는 등 장성군의 부적절한 행정이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3월20~28일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은 2021~2023년 동물보호 시설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자를 부적절하게 수탁자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미신고 불법 건축물로 농지법 제35조를 위반한 불법 농지 전용 필지로 조사됐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6~9명으로 구성하도록 장성군 조례에 규정했으나, 군은 2020년 12월23일과 2022년 1월5일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각각 4명, 3명으로만 구성해 심의·선정하고 수탁자 의무와 이행 등을 명시한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

장성군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사업 수탁자가 2021~2023년 총 60건 6억4천184만원을 지원받아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며 증거 서류 등을 부실하게 작성·제출했음에도 지휘·감독 업무를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

된 운영비 등이 신원 불명자들과 입·출금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 팀장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현 업무 담당자 1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현 담당 국장과 전 담당 과장 2명 등 업무 관련 공무원 8명은 훈계를 요구했다.

특히 사업비 횡령의 의심되는 보호센터 수탁자와 종사자, 신원 불명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감사에서 업무처리 부적정을 비롯해 계약, 예산 집행 등 총6건의 위반·부당사항을 적발했다. 화수·부과 추정 등 재정상 처분은 총 22억천300만원에 달한다. /양시원기자

### ▶1면 '전남권 의대설립'서 계속

이어 '전남도가 순천대 글로벌30에 산과 관련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는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고, 도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

는다면 정부와 전남도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모든 대학이 공모 과정에 참여해 전남 전지역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해야 할 때"라고 동부권의 공모 참여를 강조했다.

## 김영록 지사, 2박3일 일정 中저장성 방문

### 무안국제공항-항저우 정기노선 취항 협약·관광설명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전남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저장성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방문 기간 전남도 관광설명회 개최, '무안-항저우 간 정기노선 취항' 업무협약, 전남도와 중국 저장성 간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등에 나선다.

첫 날인 8일 중국호남항우회와 현지 거주 유학생 등 30여명을 초청해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모집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9일엔 이렌홍 저장성 당서기와 회담을 하고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남도 관광설명회 개최, '무안-항저우 간 정기노선' 안착 등에 저장성 간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등에 나선다.

또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확대와 무역·문화·관광 및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여수에서 개최하는 '2024여수세계박람회'에 저장성의 참여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계자, 언론인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도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인 아웃바운드 여행사인 에이앤티(A&T), 중국 항공운항 계약대행사인 노타에서 서비스와 '무안-항저우 간 정기노선 취항' 업무협약을 한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 미신고 숙박업소 6곳 적발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실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 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 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

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전남 1

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찰했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합72  
강간미수 등

피고인 김수연

위 피고인은 강간미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중량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7. 4.

재판장 판사 김용규  
판사 서승범  
판사 이지혜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신안동 이면도로코너 대지165㎡ 3층건물 200㎡  
급매3억1,000(보5,000월128포함)투자가치최고

우산동 재개발아파트1200세대 정문 코너  
대지404㎡ 3층건물 16억5,000(보5,000월600포함)  
병의원,슈퍼등 투자가치 최고

담양댐 유원지옆 대로변450,000㎡(계획관리77,000㎡)  
경관수려 무풍지대 개인왕국 총가96억(3.3당77,000원)  
관광 위락단지, 자녀유산용최적(시세3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임대
- 판매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